합창으로 이룬 '어린이 포교 10년 결실'

2월 8일,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200여 명 참여해 합창 선보여
명상 음악으로 '행복 지금 여기'
"합창서 공동체 정신 체득하길"
무진선원 · 상산보리회 포교 협약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무진선원과 재단법인 상산보리회, 천진불합창단 간 전법 포교 협약식 모습.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 이하 천진불합창단)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7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이번 합창제는 '열 번째 사랑, 빛으로 희망으로 온 천진불'을 주제로 오는 2월 8일 오후 3시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합창제에 앞서 천진불합창단은 1월 22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 시원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어린이 포교 활동과 합창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천진불합창단 회장 영산 스님을 비롯해 도진 스님, 담화림 스님, 김소라 지휘자 등이 참석했다.

회장 영산 스님은 "천진불합창단 창립 10주년은 그간의 어린이 포교와 음악 수행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아이들이 수행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합창제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합창제는 부산·경남지역 사찰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10여 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해 합창과 합동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팀은 은암어린이청소년합창단(동림선원), 종소리어린이합창단(종문사), 나모리어린이합창단(황룡사), 선혜단이슬합창단(관음사), 상림어린이합창단(서암정사), 혜원소년소녀합창단(혜원정사), 무진선재단(무진선원), 보리수어린이합창단(신제주불교대학보리앗), 가람청소년합창단(정토사), 문수선음합창단(마산 정법사) 등이다.

각 사찰 합창단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연습과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음악적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종교계 합창단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킬 만큼 안정된 음정과 풍부한 화성, 균형 잡힌 하모니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 단원들의 성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준 높은 합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소라 지휘자는 "그동안 음향과 연출에 일정 부분 의존했다면, 올해는 안무를 최소화하고 모든 단원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동작 역시 노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절제해, 합창 본연의 감동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상 음악으로 무대를 열어 공연 전반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프닝 곡은 틱낫한 스님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로, 명상과 알아차림을 주제로 한 무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진선원과 재단법인 상산보리회, 천진불합창단 간 전법 포교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에 따라 무진선원은 올해부터 천진불합창단이 주관하는 합창제에 5년 연속 참가한 단원을 대상으로 축하 장학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상산보리회는 '천진불 삼귀의계·오계 수계식' 봉행을 위해 매년 500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합창제에서는 5년 이상 활동한 단원 8명을 별도로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1월 22일 영도구청서 전달식
취약 · 위기가구에 1000만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1월 22일 영도구청에서 '2026년 복지등기 사업'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따뜻한 불심이 부산 영도구에 전해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1월 22일 영도구청에 취약계층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2026년 복지등기 사업'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024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기부를 이어 오며, 지역 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는 복지등기 사업과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동시에 돕기 위해 기탁 규모를 확대했다.

영도구가 운영하는 '복지등기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지역 내 취약계층 200세대를 방문해 복지 안내 우편물을 전달하고, 동시에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를 살피는 현장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다. 배달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구청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가정까지 직접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복지등기 운영비뿐 아니라 고독사 위험 가구, 돌봄 공백 가정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복지등기 사업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발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생활 현장에서 실천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과 돌봄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도구청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는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5대 종교, '시민 행복' 공동선언문 채택

부산시, 불교 등 초청 신년인사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부산시가 주최한 '2026 부산광역시 5대 종단 신년인사회'에 동참해 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함께 기원했다.

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대표자 등 종교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공동의 가치로 하나 되어, 부산의 내일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종교 간 화합 및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5대 종단 대표자들은 부산 발전과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선언문에 따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시민 공동체 완성 △15분 도시 모델 민간 협력사업 확대 △글로벌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 △가족친화·평생교육 도시 조성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 활동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전했다.

정오 스님은 "새해를 맞아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이해의 인연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어렵지만 '감인대'의 가르침처럼 참고 견디며 기다리면 시련은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시절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시공무원불자회, 병오년 신년법회

1월 22일, 혜원정사 법당서



부산시공무원불자회(회장 김봉철)는 1월 22일 혜원정사에서 '병오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새해 첫 법문을 청했다.

원허 스님은 "공직자는 시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수행처로 삼아야 한다"며 "일상의 작은 실천이 사회를 맑히는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신년 발원문을 통해 "반야바라밀의 빛을 삶의 길잡이로 삼아 밝은 말과 밝은 얼굴로 바라밀의 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락서암, 인재불사 원력 제7회 장학금 전달식

학생 22명에 1640만원 전달



부산 락서암(주지 수월 스님)이 지난해 12월 27일 대웅전에서 '제7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 승가원 종정 자인 대종사, 법화종 부산종무원장 용암 스님, 부산영산재보존회 이사장 성림 스님,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화엄승가회장 대각 스님, 한빛마음회 장학회 임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장학금은 대학생 12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7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3명에게 각 30만원씩 전달돼 총 22명에게 1640만원이 지급됐다.

수월 스님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장학금 후원을 계속하겠다"며 "훗날 사회에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지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